

곡성군, 의료 공백 해소 소아과 진료 시작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활용
옥과보건지소 내 진료실 마련
소아과전문의 방문 진료 시행
지정기부사업 발굴 확대 속도

곡성군이 지난 1년여 동안 관내 아이들의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옥과보건지소 내 진료실을 마련해 소아과 전문의가 1주일에 2회 방문진료를 시행중이다.

5일 곡성군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공통 문제인 소아과 진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아과 전문의가 1주일에 2



곡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사업 일환으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지정기부 사업을 시행중이다. 곡성군 제공

회 곡성군에서 방문 진료 실시 소아과 진료실을 만들고 의료장비 구입, 소아과 사

전에약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모금 캠페인으로 농촌 지역의 소아과 공백 문제에 대한 공감과 소아과 오픈런에 지친 젊은층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고 모금 목표액인 8000만 원을 달성, 현재는 옥과보건지소 내 소아과 진료실을 리모델링 중으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8월 진료를 시작한다.

곡성군은 단순히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지역 문제 해결, 나아가서는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곡성군은 ‘어르신 돌봄을 위한 마을빨래방 프로젝트’와 ‘소아과의사 상

주를 위한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시즌2’, ‘유기동물 보호센터 확장 및 시설 개선 프로젝트’ 등을 지정기부사업으로 정하고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모금 목표액인 8000만 원에는 지역의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소중한 기부를 해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이 담긴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부자들의 성원과 지역민의 지지뿐만 아니라 사업 취지에 공감한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8월 진료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결혼이주여성 친정 보내다
장성군, 15가정에 항공료 등 지원

장성군이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을 추진한다.

5일 장성군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는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항공료와 모국 체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 입국 2년 이상 지난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으로, 올해는 선정 기준을 완화해 총 15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 표창 이력 유무 등 서류심사 기준도 다양해졌다.

장성군에 머문 기간, 모국 방문 횟수, 부양가족 수 등으로 우선 수위를 정하며 기존에 지원받았던 가정은 신청할 수 없다. 2011년부터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을 추진해 온 장성군은 지금까지 140세대에 고향 방문 기회를 제공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함평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거주지 일치 여부 확인 등

함평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5일 함평군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1차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2차 이상 및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확인하는 조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2차 방문조사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함평=신재현 기자

화순군, 금연구역 확대·신규지정
유치원·학교시설 반경 30m 이내

화순군은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및 신규 지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 내용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및 신규 지정되었다.

올해 8월 기준 관내 교육시설 현황은 어린이집 28개소, 유치원 19개소, 초·중·고교 31개소로 총 78개소이며 17일부터는 해당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화순군보건소에서는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지정표지판을 수정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금연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화순=김선종 기자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
나주시, 태풍 등 대비

나주시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앞두고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에 나섰다.

나주시는 자연재해(태풍, 호우 등) 발생 시 위험수목 도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벌목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위험수목 처리반을 매년 구성해 인력으로 처리가 가능한 소형 수목은 자체 제거하고 있으며 크레인 등 중장비가 필요한 대형 수목일 경우 위험수목 제거 사업을 발주해 처리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나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택에 연접해 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이며 가지치기가 필요한 수목, 낙엽·해가림 등 단순 불원수목, 측사, 마을회관 등 주택이 아닌 사유지 수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험수목 처리 지원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면 되며 접수된 위험수목은 현장 확인 후 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나주=조대봉·김용의 기자

흑찰옥수수 생산단지 육성
곡성군, 삼기면 등에 45ha 규모

곡성군이 고품질 흑찰옥수수 생산을 위해 삼기면 등 2개소에 총 162농가들이 참여하는 45ha규모의 흑찰옥수수 생산단지를 육성한다.

5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7월초부터 흑찰옥수수 수확에 들어가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고 올해 예상 수확량은 142만 개, 현재까지 68만 개가 출하됐다.

오는 9월부터 군은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해 일반 옥수수보다 작은 8~10cm 정도의 미니 찰옥수수를 생산해 틈새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곡성 흑찰옥수수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 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품질의 균일화와 규모화를 통해 지역의 소득 작목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영광군 관계자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영광군은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고령자,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폭염 대비 건강 취약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고령자,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재가암 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간호사 7명은 대상자 가정과 경로당을 안부 살피기,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혈압과 혈당 등 건강검사, 여름철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한다.

여름철 건강관리 주요 내용은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 취하기 △더운 시간대(오후 12시~오후 5시)에는 외출 자제하기 △매일 기온 확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수칙 흥

보를 통해, 폭염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폭염에 취약한 만큼 건강 상태를 자세히 살피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건강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 국산김치 사용업소에 식자재 구입비용 지원

영광군(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외식업소의 부담경감과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 등에 국산김치 식자재 구입비용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을 받은 일반음식점, 학교, 공공기관으로 김치 제조에 필요한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식자재와 김치 완제품 구입 비용이다.

식자재 구입 비용은 연 1회 개소당 최

대 25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지정 현황은 212개소로, 미인정 업소가 지원하려면 사전에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김치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영광=김도윤 기자

화순군, 내일 밤나무 해충 항공 방제 실시

화순군은 5일 밤 재배 농가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밤 수확량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항공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7일 산림청 헬기(AS350 소형) 1대를 지원받아 백야면, 사평면 일대 73.2

ha 밤나무 방제 대상지로부터 15~20m 상공에서 방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사용될 약제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친환경제품으로 고품질 생산은 물론 인근 친환경 재배지에도 영향이 없다.

밤나무 해충은 주로 종실에 해를 가하는 복숭아명나방, 밤바구미 등이며, 과육을 파먹어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산림과는 지난달 18일 사평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밤나무 항공방제 당부 및 협조 사항, 약종 선정 등을 전달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화순=김선종 기자